

즉시 의치를 이용한 하악 수복 증례

황운태, 박남수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교실

구강내에 잔존하는 치아가 심하게 치주질환에 이환되어 광범위한 골 결손 및 심한 치아 동요도를 나타내는 경우, 잔존 치아들은 고정성 혹은 가철성 국소의치의 지대치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모든 치아들을 발거한 후 무치악 조직이 완전히 치유되어 최종 의치를 장착할 수 있을 때까지 즉시의치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를 접하게 된다.

더욱이 치아를 일시에 전부 발거해야 하는 환자들의 경우 다음과 같은 이득을 얻게 된다.

- 1) 발치후 즉시 의치의 부목 작용은 동통을 감소시키며
- 2) 몇달 동안의 저작 불능과 피할 수 없는 영양 부족과 같은 불편과 고통을 줄일 수 있으며
- 3) 수직 고경의 유지로 기존의 안모를 유지할 수 있으며, 하악의 위치 변화와 근육활동의 변화를 방지할 수 있으며
- 4) 초기 의치 사용에 따른 고통과 불편함은 수술로부터의 회복이 진행됨과 동시에 극복될 수 있다.

즉시 의치의 경우 발치 후 발치창 주위조직의 종창이 일어나며, 이로 인하여 의치의 완벽한 적합이 불가능하다. 따라서, 보통 즉시 의치의 안정은 의치 장착 후 48시간-1주 또는 2주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, 초기에는 유동식으로 식사를 해야하는 문제와 시간의 경과에 따른 골흡수에 의해 의치의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. 그러므로, 즉시 의치의 경우 치아 발거 후 치유 기간 동안 계속되는 골흡수로 인한 의치 적합도의 문제와 편악 즉시 의치의 경우 교합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검사를 통하여 denture relining과 교합조정을 시행해 주어야한다.

본 증례의 환자는 중중의 성인성 치주염을 가진 38세된 환자로 심한 치아 동요도로 인한 저작곤란과 동통을 주소로 내원하였다. 하악 치아에 대한 방사선 검사를 통해 하악 전체 치아를 발거하고 즉시 의치를 장착했다.

본 증례를 통해 즉시 의치의 제작 방법, surgical template의 이용 및 시간 경과에 따른 연조직의 치유 상태와 골 흡수에 따른 relining의 과정등을 발표하고자 한다.